

수기 가작

남들이 가지 않는 길 ①

허경자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 달아 오른 낡은 자동차의 엔진을 달래가며, 오늘도 나는 8월의 폭염 속을 어릿잡이질하고 있다. 어느새 7년... 옷기는 듯 서늘해 살아온 그 동안의 세월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었지만, 물 흐르는 듯, 빠르게 지나버린 내 청춘을 돌아봄에 있어, 고생스럽기가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날들이 새삼스럽게 따뜻하게 느껴져 온다. 이제는 나도 조금씩 조금씩 늙어가고 있음을 완연히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 내가 지금 하는 일.

이른 새벽에 남편이 서둘러 출근을 하고 나면, 나는 집안 청소와 아침 설거지도 비롯한, 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아이를 챙겨서 부지런히 집을 나선다. 가는 중에 딸아이를 내려주고, 손님을 도착하는 유치원 차에 아들아이를 태워 보내고 나면, 놀상 되풀이되곤 하지만, 본격적인 나의 하루는 시작인 것이다. 나는 늘 모르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전업사, 즉 전기 전문가를 판매하는 일이다. 흔히 사람들은 남편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금방 한눈에 들어오는 케이블과 파이프, 그리고 변압기 및 고압 자재들을 직접 운반하고 정리하며, 남품해 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나의 일과이다. 대부분이 남자들의 영역인 이 분야에서 나는 벌써 7년째나 종사하고 있다. 여자로서는 보통 험거운 일이 아니지만, 해

가 바뀔수록 일에 대한 나의 애착은 자꾸만 더해져 간다.

2. 전기업과의 인연

남편은 대학졸업 후 다행스럽게도 바로 취업이 되어 성실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한 생활의 연속일 뿐, 여유란 것을 조금도 가져볼 수 없었다. 남편과 동갑이었던 나는 은연중에 딸아이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맛벌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남편의 의도대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전공과 같은 계열의 전업사 쪽으로 결정을 보게 된 것이다. 예능 쪽에 취미가 있어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나에게 전기자재를 취급한다는 일이 결코 쉽거나 흥미로운 일은 못보았기 때문에 남편은 재발상시, 아내는 고교수업을 직전으로 재수하여 가게 일을 다 맡아 보도록 하고, 나는 그저 전심부름이나 하면서 전화예모를 해 나가도록 하였었다. 결혼 후, 꼬박 꼬박 부어왔던 재형저축을 험악한 자금은 다 빠져 없어진 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의 도움 없이도 꾸려갈 만큼 순조롭게 풀려 나갔다. 아마도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패션업계에서 이름난 전문직 여성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하여튼 나는 3살짜리 딸 아이를 데리고, 하는 일은 대단치 않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열성을 보여 왔다.

3. 열심히 배우며 일하며

항시 땀뻑하게 생활을 꾸려가던 나는 부업으로 인해 한



결 나아지는 가게부를 체크하며 이 일에 대한 새로운 매력은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근하는 단단한 생활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려들어보자는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잘 나가는 물품과 단지 전열종인 제품과 구분을 하여 자재정리를 다시 하고, 목록표를 작성하여 물품의 재고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갔다. 그리고 전문적인 직종이고 보니 나에겐 어려운 일이긴 해도, 어떤 물건들이 어느곳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 목록표에 나타난 제품명과 제품, 그리고 배선회로도들 머리속에 함께 연관지어 기억하는데 얼마

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모른다. 성서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여다가 지름길은 물론 없다고 하지도 말라던 남편도 계속되는 나의 질문공세에 끝내적으로 포기해 관한 이론들을 하나둘씩 알려주기 시작하였고, 다행스럽게 모든 일에 성실하고 협조적이었던 기사의 도움으로 나는 그 당시 여자로서는 보기 드물었던 1종 보통의 자동차 면허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며 일에 매달렸는지 미련하게도 나는, 임신 4개월이 다 되어서야 입덧 한번 없이 둘째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에 대한 뜨거웠던 나의 열정은 가게에서의 내 위치를 점차적으로 끌어 올려

놓았고, 그 동안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처리해 왔던 거시도 나에게 종종 자문을 구하는 경지까지 이르러 있었다.

4. 둘째 아이의 탄생과 웃음

몸이 점점 무거워져 왔지만, 일하는 재미에 빠져 낮잠 한번 제대로 자지 못하였던 나는, 해산일이 다 되어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가게 일에 종사하던 기사의 아내인 윤정자씨는 남편의 출산일과 일치하는 해산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1주일이란 기간 동안 문을 닫는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나의 고민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1주일 동안의 매상은 그 정도는 되고, 계열 상이었던 다른 가게와는 어떻게 이해를 구한다 말인가. 몸 속에 있는 둘째아이도 무척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지만, 이제 막 자리잡아가는 나의 일도 이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지 오래였다. 결국은 초산임은 일당겨 수술을 받게 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남기 위해, 나는 아들 일찍 병원을 찾게되었다. 지금 와 생각하면 당돌하기가 없을 데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배합물에도 생으로 애를 낳았다고 혼자서 의사선생님을 찾아 보았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 온종일 축전제를 맞고, 땀으로 뒤범벅이 된 저녁에서야 무의식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다. 운이 좋게도 수술없이 자연분만이었지만, 밤중에

아 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쓰러진 사이바나와 윤정자씨. 그리고 눈을 부릅뜬 남편의 얼굴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 차분히 눈앞에 들어왔다. 나는 어르신들의 부음을 모면이라도 하려는 듯, 배시시 웃으며 중얼거렸다. '아들이래요' 라고.

5. 새날의 희망

배가 풀리자 다음 해에는 아이 빨리 해산하여 몸이 가벼워지면 집안일은 밖의 일이든 거침없이 해낼 것만 같더니, 막상 몸을 풀고 나니 마음만 조금하고 바쁘게 돌아가리는 예전처럼 부업일을 수가 없었다. 귀찮게 믿은 사이바나씨는 해산일이 3주만에 완만한 몸을 바꾸고 좋은 가격으로 부득이 출근을 하게 되었고, 나 또한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못한 행색이라 부시시한 얼굴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저녁때면 비닐봉지 가득 쌓이는 오줌기저귀에 체중을 싣고 집으로 돌아 오지만, 힘들게 일하고 바쁘게는 남편을 반갑게 맞을 정도의 여유도 없이 집안일에도 부딪치고 시달려야 했다. 남편의 직장관계로 시댁이나 친정집은 별의 별이져 이곳 저곳에 있는 나에게는 친구들의 도움이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남편은 아들녀석이 백일쯤 되어갈 무렵, 여직원 한 명을 임의로 채용해 버렸다. 나와는 의논치 않은 남편의 일방적인 처사에 처음에는 강하게 반항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여직원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지내는 내 자신을 깨닫고는 새삼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다.

(계속)

수기 심사평

성별분업의 벽 깨어 가는 과정 잘 그려

장필화/이대교수, 여성학

소설이나 회화 같은 창작물과는 달리 어떤 '숙련함', 이것이 수기를 말할 때 우리가 갖는 느낌인 것 같다. 아마도 수기란 그것을 쓴 사람이 살아온 삶의 깊이와 무게를 더 많이,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수기의 평가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필자의 삶에 대한 평가가 될 수는 없다.

허경자 씨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정한 이유는, 성별분업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깨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있었기 때문이다. 강한 의지와 목표의식이 있을 때, 사회 곳곳이 남성중심적인 조직과 인식으로 둘러 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것 같다.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목표를 관철해 내는 모습이 희망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욕심을 내자면 좀더 깊은 자기성찰의 모습과 여유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이번에 응모한 4편의 수기들 중 장복인 씨의 작품과 무궁화 씨의 <희망이 하는 일은 절망이 없다>의 두편은 배경과 시대는 다르더라도 한 여성으로서 혼자 힘으로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는 데 되는 험거운 여정을 그려내는 점에서 보다 많은 독자와 나누었으면 했지만 한정된 지면에 내놓기에는 아직 좀 더 정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선정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선소감

앞으로의 삶에 작은 불빛 되어주길...

허경자



완전한 가을이다. 유난히도 많이 내렸던 비날 씨 탓에, 맑았던 올 여름의 아쉬움을 보상이라도 하듯 우리

가 숨쉬는 곳곳엔 어느 사인가 가을의 정취가 물씬 배어 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하늘과 호드려지게 피어난 코스모스의 군락, 그리고 벌써부터 서늘한 바람에 찬을 보였던 누추한 벽들과 불기만 한 후시감... 눈만 뜨면 가슴에 꽂히는 계절 속의 작은 이야기들이 어느새 가을의 소중한 의미가 되어 다시금 우리 앞에 펼쳐져 온다. 며칠전 나는 분에 넘치는 올 가을의 선물을 여성신문사로부터 전해 받았다.

하루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왔을 뿐인데 그 대가로 주어진 보상이라면 나에겐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뻔뻔치도 못한 나의 생활담을 예쁘게 봐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성신문사 관계자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갖는다. 이런 수상의 기회가 앞으로 펼쳐질 내 삶에 대한 작은 불빛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착한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

수필 당선작

“명함만들기”

장덕자

그것 참 묘하다. 그렇게도 간단하게 재빨리 내가 누구임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더니. 다시 한번 지갑에서 슬며시 꺼내어 본다. 손가락 사이에 끼워 놓고 요리조리 돌려본다. 어찌 보면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않은가.

나는 여성단체에서 상담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지난 가을에 상담실 간사가 별로 예뻐진 않더라며 작은 종이문치를 내밀었다. 웬지 쑥스러워 제대로 살펴볼지도 못하고 어색한 자리를 피하기라도 하듯 서둘러 몇 장을 지갑에 넣었다.

‘상담원 장덕자가 단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보다 약간 더 큰 글씨체로 앉아 있다. 또박 또박 적혀 있는 이름 석 자. 웃긴다. 정말. 이런 게 뭐 필요할라구? 그러면 서로 절친한 사람을 만나면 누가 불세라 주위를 살펴봐 은밀히 보여 주고는 ‘웃기지? 하며 기특거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단체의 일로 신문사에 갔다. 무슨 말을 먼저 꺼

내야 할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사무실 문을 밀었다. 인사를 하고, 긴장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더듬거리며 지갑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다.

이제 어찌된 일인가. 구구하게 내 이름을 말하고, 소속된 단체를 말하고, 그 단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말하느라 진담나게 하는 그 복잡한 절차를 양정스러우리만큼 작은 그 종이조각이 대신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그것을 살펴보는 동안 나는 숨을 가다듬을 수도, 주위를 살필 수도 있었고 어느새 안정된 표정으로 다음에 이어질 그의 태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신기해졌다.

처음에 내 이름자가 박힌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토록 부끄러웠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것처럼 의젓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정된 호흡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힘은 또 무엇이었을까?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명함 주고 받기에 이처럼 특별하게 감동하고 있는 나는 또 왜 그런

손스러운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한번도 내가 아닌 적이 없었던 활자화된 내가 그렇게도 낯설게 느껴지다니. 실제로 나는 그 종이조각에 적힌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건만, 사회와 연결된 수도관보다도 더 거대한 그 역할로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한 듯, 자아실현이라도 이룬 듯 안심하고 있는 내가 정말 우습다.

그렇다면 그렇게 요약되기 전의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밥이나 짓고 설거지나 하는 사람? 바가지나 긁고 아이들에게 악이나 쓰는 사람? 사실 그랬다. 나는 어느자리에서 나를 소개할 때마다 주저없이 ‘집에서 놀아요’ 했다.

내가 놀기만(?) 하고 보내는 집이란 어떤 곳일까?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긴장감을 풀어내는 유일한 곳이 집이 아닐까. 약점이 많은 우리는 가족 안에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수도 있다. 종말적인 관계가 아닌 상모적인 관계로 서로가 자유로이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명령하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기도 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기도 하고, 달래거나 위협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낸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음식과 안정감을 주는 곳이 가정이다.



자! 우리들
주부가정관리사도
모두 명함을 만들자
이제
이제사회에는
가사용 로봇에게
맡겨 버릴지도
모르는 우리의
중요한 일,
직업을堂堂하게
사회화 하여 봄이
어떨까?

당선소감-중편소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쓸 터

홍새라



아는 아이가 고맙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내에’

아직도 저는 당선이라는 말이 실감나질 않습니다. 엉성한 구석이 너무도 많음을 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께서 저의 글을 뽑아주신 것은, 이 인간으로서의 끝 당을 데 없는 절망을 여성 스스로 힘차게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못 여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유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기쁨을, 우리 여성들의 뒤편에서 말없이 일하고 계시는 세상들이 탁아방 선생님들에게 드립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아이보기를 마다않는 우리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저 역시 글쓰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며 절망할 때마다 위로하고 힘을 주며 가정경제를 책임졌던 남편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정성스레 쓰는 것으로 저는 제 마음을 열어 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아이를 업고 탁아방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바빠 건다 자동차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내 앞에는 아이와 나의 등 뒤로 가득 쏟아지던 가을햇살이 황홀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노려보며 비껴가는 자가용 운전수를 무시하고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술아, 엄마가 쓴 글이 당선되었대. 그건 바로 세상 여자들이 모두 자기 삶에 주인이 되려 몸부림친다는 얘길거야. 술아, 랑 엄마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거야. 아빠랑, 세상 절반의 남성들이랑 우리 사람사는 세상동네를 열심히 만들어 보자, 응?”

단어 몇 마디만을 겨우 할 줄

수필 심사평

평범해지기 쉬운 소재 효과적으로 다뤄

우명미/방송작가

무엇보다도 먼저 축하할 일은 여성문학상 작품 응모자의 연령층이 해마다 확대되고, 또 이들 응모자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일 듯하다.

‘글이었으나 용기를 내어 출작이나마 보내 봅니다’라는 추신과 함께 보내온 팔순 노인의 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속하는 응모작품 49편 중에서 우선 몇 편을 추려 보았다.

《명함만들기(장덕자)》, 《이즘이라는 이름(강문순)》, 《수박 사 오세요(윤은희)》, 《노래를 잃어버린 카나리아(제옥례)》, 《여자의 방(박정애)》, 《발에 대한 사색(이선희)》. 이 여섯작품 중에서 장덕자 씨의 《명함만들기》를

이 모든 일이 나(주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보니 나는 가정관리사였다. 노는 듯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가정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할 때 내기 위해 우리는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바가지도 긁고, 약도 썼던 것이다.

가정관리사 ○○○
주부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부노

조를 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언젠가 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아하게 명함을 내밀며 여유로운 미소를 어금 수 있지 않을까.

당선소감-수필

글쓰기야말로 나의 ‘살림’

장덕자



감추려고 더욱 열심히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의 호소에 같이 울고, 분노하면서 억압받는 여성에 대한 애정으로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내 어머니와 내 딸과 나의 삶을 새롭게 읽으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모든 여성들,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의 ‘주눅들기’도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어제는 정말 기뻐다. 이제부터 좀더 자신감을 갖고 내가 경험하고 인식한 세계의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다.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하면서 늘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어머니께 이제 글쓰기야말로 나의 ‘살림’이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작 시골집에를 끌고 온을 나리는데 전화가 왔다. 전히 못박이었다. 어리둥절한 채 두두커니 있다가 버스를 놓치고 택시를 타야만 했다. 네거리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모습이 상쾌하다. 신호등의 초록불도 유난히 반짝거린다.

대구여성의전화에 발 디딘 지 3년.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는가 싶었다. 글쓰기는 뒷전이었다. 같이 공부하던 글친구들의 은근한 걱정조차 귀찮아 하면서 이 일에 매달렸다. 사실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아니 주눅들이 있음을

당선작으로, 제옥례 씨의 《노래를 잃어버린 카나리아》를 가작으로 추천한다.

《명함만들기》는 자못 평범해 질 수 있는 소재를 효과적으로 취급해 공감을 이끌어낸 솜씨가 높이 사줄 만하다. 가정주부라는 직업에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호감을 준다.

《노래를 잃어버린 카나리아》는 늙음의 징후가 뚜렷해지는 자신을 객관화 시켜 묘사,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문장은 아니지만 고령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돋보이는 글이다.

직장 여성의 여가문화

전망 없는 직장생활, 여가마저 김 빠지게

정보 부족·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한 요인

자칫하면 '시간 때우기'의 함정에 빠지거나 일회용 놀이문화에 휩쓸려 아깝게 놓쳐버리기 쉬운 직장여성의 여가. 전망 없는 직장생활, 결혼에 대한 부담감, 정보 부족 등이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들과 활동영역을 극복해 자기시간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한 많은 여성들이 있다.

직장여성의 여가 문화의 현주소와 적극적인 활용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본다.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내일을 위한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여가활동이라 할 때, 실제로 직장 여성들은 그와 같은 목적에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여기서 한가지 염두에 둘 일은 같은 직장여성이라도 기혼이나 미혼이냐에 따라 여가 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혼 여성의 경우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에 들어가 가사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이렇다 할 여

가, 즉 남는 시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집에 가긴 섭섭하고 할 일은 없고"

올해 7월 중 <여성민우회>에서는 8개 업종, 1백 98명을 대상으로 <사무직 여성의 여가 활용>이란 주제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기혼, 미혼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응답자의 70% 정도가 미혼이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무직

여성들은 퇴근 후에 친구, 동료를 만나거나(36.4%), 주로 공장 집으로 가는(32.8%)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원에 다니거나 남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한다는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여기서 곧바로 귀가한다는 사람들은 주로 기혼 여성들이었다.

이혜성 씨(24세)는 사람들 만나는 일에 퇴근 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경우. 현재 한 출판사에서 백과사전 편집 일을 하고 있는 그는 바로 집에 들어가기가 섭섭해 저녁 약속을 많이 만드는 편이라고 한다.

"계획을 가지고 또는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닌 이상 만나는 사람의 범위도 한정되고 하는 일도 편하죠.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나 주제도 별반 변동이 없고 그야말로 서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상대편의 시간을 이용하는 수준의 만남이 되기 십상이예요."

이와같은 직장여성의 만남의 문화에 요즘 들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술마시기.

미혼 여성 김희숙 씨(가명, 24세)는 "한두해 전만 해도 여자들끼리 만나면 으레 찻집에 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에는 바로 호프집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사회가 좀더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여성의 음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한 때문인 듯, 특히 이미 찻집은 '졸업'하게 된 고참 여사원들이 술집을 더 많이 찾았다고 한다.

한편, 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뭐니뭐니해도 텔레비전 시청. 독서는 한달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를 읽는 사람이 가장 많다. 주로 소설을 읽는데 책을

고르는 기준은 역시 각 대형서점에서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인 경우가 대부분.

퇴근 후 학원에 다니는 여성들의 수도 많은 편이다. 대개 영어나 일어회화 학원에 다니고 그 외에는 꽃꽂이, 컴퓨터, 피아노 학원 등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강좌를 신청하고도 한두달 정도 다니다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 외에 스포츠를 통해 여가를 보내는 여성들도 소수 있는데, 가장 즐겨 하는 스포츠는 볼링(40.4%)이고 그 다음으로 수영(28.8%), 탁구(9.6%) 순.

결혼 하면 전부 끝, 포기와 체념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직장여성 중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때일을 보내는 이들이 대부분.

왜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물론 우리나라의 직장인 여가문화 자체가 아직 미미한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직장여성 자신은 대개 회사 업무나 그 안에서의 여직원의 위치와 결부시켜 생각한다.

주식회사 <백양> 수출부에 근무하는 구자진 씨(26세)는 "직장에서의 여직원의 승진의 어려움이나 전망 없음, 결혼하면 직장생활도 그만 끝이라는 생각, 또 현재의 단순 사무직이 아닌 뭔가 가능성있는 새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 등이 뒤엉켜 계획성 있는 여가 활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한다.

여가를 이용해 외국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익혀도 그것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래서 한두달 해보다 지레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남성들의 경우 그러한 기술의 습득이 곧바로 회사 내에서의 실력인정과 직결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회사 내의 각종 모임들도 거의 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남성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그대로 업무나 승진과 관련된 문제들과 연관이 가능한 반면 여성에게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결혼에 대한 여성의 현실의식도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구 씨는 "여자와 결혼하면 그만둘 것 기를 쓰고 돈 써가며 편가를 할 생각이 안나는 거지요. 사실 여자의 취미 생활이라는 게 결혼하면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직장은 그만두게 될테니 경제력도 없을테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가 생활을 잘 이끌어가던 사람도 여인이 생기면 백팔십도 변해버린다. 우선 그 남성에게 모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자기만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친구들과도 소원해지거나 계속 나가던 모임에도 발길을 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와같은 때도 별 소용없다는 식의 생각은 대졸여사원이나 고졸여사원 모두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결혼을 해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여가를 활용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이후의 자

신에 대해서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 받은 이의 여유일 것이다.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다는 것도 여성의 여가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

창조적 여가는 삶의 질 바꾼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직접적 도움을 주거나, 공동체에 속한 기쁨을 나누며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단체나 모임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한 정보를 쉽게, 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하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일상적인 문화활동, 영화와 비디오를 보고 독서를 하는 범위 또한 매우 협소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중심, 흥행 중심, 오락성 중심의 문화생활이 자리를 잡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같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나름대로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는 여성들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한 여성들은 대개 사회단체나 모임 등 일정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친구들의 격려와 끈끈한 인간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다. 또한 단순취미활동보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활동에 종사할 때 더욱 만족스러운 여가를 보내는 편.

제한된 활동영역과 사회적 조건, 관습과 인습에까지 두루두루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시간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한 많은 여성들이 있다. 창조적이고 만족스런 여가생활을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준다.

<이나라 기자>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일석이조의 여가생활

사진모임 <28사우>

사진 모임 <28사우>는 중앙문화센터에서 직장인 사진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91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진작가 김한용 씨의 강좌를 들은 28기 수강생 15명나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독자적인 모임을 꾸린 것.

셀러리맨, 의사, 도서관 사서, 학원 강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인 '28사우'는 두차례에 걸쳐 사진

전시회를 열었으며,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진촬영을 해오고 있다. 주로 자연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은 국내의 유명한 산, 바다, 고궁 등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주말이면 카메라를 둘러메고 촬영을 떠난다. 촬영이 끝나면 금요일 모임에서 김한용 선생과 함께 품평회를 하고 '작품이 될 만한' 사진을 뽑아 놓았다가 정기 전시회 때 발표한다.

초보자에서 시작한 사람부터 프로 사진작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사람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있어 서로의 기량향상을 위해 조언과 칭찬을 잊지 않는다. 회원 중 남정선 씨와 정미영 씨가 결혼으로 골인. 지난 5월 화축을 밝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후레쉬 촬영시간에 정 씨가 남 씨의 모델이 되면서부터라고. 3년간의 연애편에 결혼한 이들의 결혼식에서 회원들은 신랑신



▲사진모임 <28사우>. 작년 10월 오대산 촬영 때 한 컷

부를 모델 삼아 결혼식 사진촬영의 기회를 갖기도 했으며, 흑백과 컬러 필름으로 나누어 찍어 만든 두권의 앨범을 결혼선물로 전달했다.

"도서관 문화 전반을 담은 사진을 찍고 싶다"는 정연숙(국립중앙박물관 사서) 씨는

"사진을 찍으면서 예전엔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사물들에 세세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놓으면 아름다운 사진이 나올까 고민하게 되고 생활하면서도 '사진적인' 인사를 늘 하게 되어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라

고 말한다.

사진하면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 1백 50만원 정도만 감당하면 그 이상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한차례씩 일주일 동안 개최하는 전시회도 회원들이 매달 1만원씩 내는 회비를 모았다가 비용으로 사용한다. 각자 두점씩 출품해 1년간 고생해서 얻어진 서로의 성과물들을 보며 돈독한 우정을 쌓는다. 올 전시회는 12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장소의 풍경을 찍더라도 계절에 따라 또는 시간과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28사우>회원들은 입을 모은다.